

사설

대불련 실행에 거는 기대

한국대학불교연합회(대불련)가 창립 35주년을 맞이 했다. 그 동안 대불련은 '한국불교 바로세우기'를 위해 중심부에 서서 지성불교의 선봉장이 되어왔다. 70~80년대에는 민중불교운동론을 주창하여 불교의 현실참여에 교부보역할을 담당했다. 지금까지 20여만명의 회원이 배출되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80년대에 창립되어 현재 1000여명의 교수불자로 구성된 한국교수불자연합회도 대불련 출신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불교지식인운동의 중추가 되어왔다.

그런데 최근에 본보(제127호)에 발표된 '대불련 실행의식과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접하면서 많은 걱정이 앞섰다. 미래불교의 등불이 될 대불련의 조직과 활동이 90년대 들어와서 점점 침체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결속력이 미흡하고, 보수와 수행의 실천이 극히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 60%에 달하는 대불련회원들이 절에가도 시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대불련의 조직과 운영을 자립적으로 해야 하므로 공부하는 대학생들로서는 재정마련이 큰 부담이 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종단을 비롯한 불교계의 관심부족과 대학생포교 및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라고 밝혀졌다. 결국 인재는 기르는 불사를 소홀히함으로써 한국 불교의 장래가 불투명한 셈이다.

수십억을 들여 큰절을 세우고 불상을 봉안하는 눈에 보이는 불사도 필요하지만, 미래 한국 불교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을 키우는 불사는 더욱 중요하다. 대불련이 하루속히 힘찬 눈에서 벗어나 조직과 활동에 활기를 되찾아야 한국불교가 산다. 대불련 실행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종단협의회와 각 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불련은 현재 23개지부와 173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 각지의 거대한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는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조직운영비의 80%를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하니 환생하기 어렵다. 정의를고 순수한 대학생 불자들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졸업후 사찰과 각계각층의 실행단체에서 청년회나 각종 신도회에 적극 참여하여 불사를 주도하는 세력이 형성될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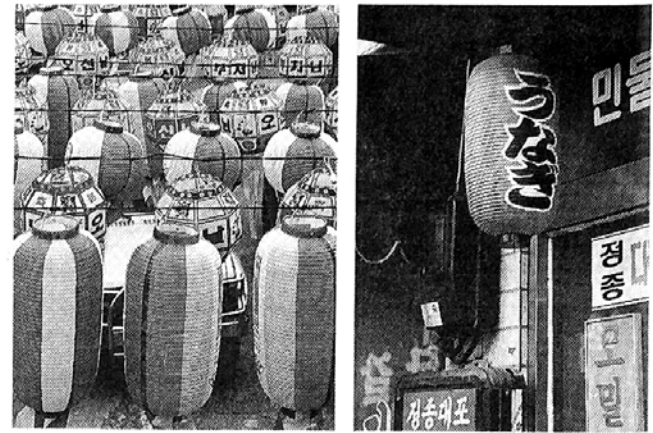
둘째, 포교와 교육프로그램 개발비가 시급하다. 이는 종단의 포교원과 교육원이 앞장서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포교전략과 교육체계를 세워야 한다. 입원들과 회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과과정은 불교수행의 뼈대가 되며, 사상적인 인식과 일상적인 수행이 조화를 이루게 편성되어야 한다. 단계적으로 교리를 배우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인적·물질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도법사와 지도교수의 담임제 및 상담등을 통해 올바른 실행생활의 길을 인도하도록 한다.

셋째, 수행결과와 수계대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대불련이 올해를 '실행의식'의 해로 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불교계에서 수행결과와 수계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지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다.

넷째, 한국교수불자연합회나 대한불교청년회 등과 연대·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불련회원들은 같은 캠퍼스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연대감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협력체제 구축에 밀거름이 될 것이다. 대불련 활성화가 가장 큰 불사이며 한국불교증흥의 초석이다.

열린마당

2541년 올해 초파일은 전후로 비가 내린날이 많아서인지 각 사찰과 간선도로에는 비닐을 사용한 장등(長燈) 환등(環燈)이라 불리는 일본풍 등이 많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말이 많다. 가장 성스러운 부처님오신날 왜색(倭色)의 사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왜색등의 사용유래와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올해 초파일에는 유난히 왜색등이 사찰에 많이 내걸렸다. 사찰에 걸린 봉축등(사진 왼쪽)과 일식집에 걸린 등.

전통등 실용성 보완 왜색등 폐기

지현 <조계종 봉축기획단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사찰에는 많은 등이 달렸다. 연등도 달리고 주름등도 달리고 전통등도 달렸다. 비닐로 만들어진 장등과 환등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사찰에서 장등과 환등 사용을 선호하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실용적이라는 측면이다. 장등과 환등을 사용할 경우 기후의 변화에 무관하다. 연등의 경우 자칫 비가 오거나 바람이 거세게 불면 제모양을 잃어 보기에도 흉할뿐 아니라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경제적인다는 장점도 있다. 비닐을 재료로 만들어진 장등과 환등은 가격이 다소 비싸나 장기간 보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한지로 만든 등에 비해 경제적이다. 이밖에도 장등과 환등은 한지에 비해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 결국 이같은 이유를 살펴볼 때 연꽃등이 가장 실용적이라는 실정이다. 매년 부처님오신날 사찰에서 사용하는 연꽃등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



다. 물론 한지로 만든 등을 달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요즘처럼 심각한 경제난과 실용주의 등을 표방하는 사회현상을 감안, 비닐등과 같이 사용과 보관이 용이한 등을 달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왜색등의 장등 환등을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등역사를 살펴보면 수박등, 목어등, 종등 등 다양한 등을 달았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 이같은 전통등을 개발해 사용하고 보관이 용이한 실용적인 등을 개발해야 한다.

전통등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에 걸맞는 등을 개발 보급한다면 봉축분위기고조는 물론 새로운 등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있는 장등 환등이 '왜색적'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더 이상 화자 않을 것이다.

결국 전통등을 바탕으로한 현대식 등 개발은 우리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등문화 변질 심각... 집집마다 제작을

진철승 <불교문화교육원 실장>

등은 불교에서 무명업장을 깨는 지혜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용어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초파일 행사자체가 억압되고 동시에 왜색 불교문화와 의식이 강제되면서 다른 불교문화와 더불어 이 등문화도 극심한 변질을 겪게 됐다. 전통적인 양식의 등 제작기술이 단절되고 상업적이고 편의적인 몇가지 양식의 등만이 초파일과 각종법회 거리에 장식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등공양 정신을 왜곡시킬 뿐아니라 한국고유의 전통문화 상실이라는 결과를 빚고 있다. 더구나 왜색등이 일제시기에 강제 이식된 차이를 넘어서 최근에도 불구용품등에 의해 일본산출 및 국내 불교계의 편의적인 요청을 빌미로 다양하게 수입 제작되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사태라고 본다.

등은 빈자일등의 감동적인 설화로 부터 발전하여 부처님께 바치는 육법공양중의 대표적인 공양물로 자리잡았을 뿐 아니라 각종불교행사의 핵심적인



장식물로 활용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래된 불법과 불교의 식 풍습은 전통적인 등들이 습속과 결합하여 더욱 다채롭고 찬란한 등문화를 창조하였다. 신라와 고려의 정월 이월연등 및 고려 말로부터 시작되어 조선조 내내 민간회 거리에 장식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최근 조계종 봉축위원회에서 전통등을 재현하고 그 보급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말기를 바라며 전통등을 기초한 일가일등(一家一燈) 제작운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런데만이 편하다고 무작정 사용되는 왜색등이 줄어들고 우리의 전통등 문화가 다시 활기를 띠고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왜색등 유래와 현황

해마다 거문돼 왔지만 이번 초파일은 각 사찰에 유독 왜색등(燈)인 장등(長燈) 환등(環燈)이 범람했다.

이들두고 교계일각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현재 사용중인 전래 연꽃등이 반수공예품이라 할수 있어 노력과 제작비용이 많이들거 점차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늘고 있는 왜색등은 비에 젖지않고 사용하기에 편하다는 이점 때문에 사용이 늘고있다. 장등 환등은 일본의 신사, 음식점, 흥등가등에서 쓰이는 등으로 일본에서는 사찰에서도 이 등을 걸지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장등 환등은 197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성수씨(홍법기획 대표)는 "장등 환등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기독교계에서 십자가를 걸기위해 유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던 것이 전국목회자협의회에서 '성스러운일에 일본 흥등의 등을 사

용할 수 없다'는 결의를 함에따라 사용이 금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등이 불교계로 유입되면서 새로운 점검이 요청되고 있다.

장등 환등은 본래 값싸고 가볍게 여러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불교계 일부에서 사용됐으나 당시 사찰의

장등·환등·주름등 70년대 유입 日선 음식점·흥등가 호객용 이용

정성껏 연일말고 불이는 풍습 살려야

반응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종이에서 비닐로 바뀌고 75년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제정 공포된 후 간선도로에 연등설치가 시작되면서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더니 요즘은 대도시 사찰에서 버젓히 연꽃·팔모등의 자리를 잠식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11일부터 내린 봄비가

초파일인 14일까지 이어져 지역에따라 2백mm 안팎의 호우때문에 비에젖지않는 주름 장등 환등의 사용이 더욱 늘어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의 장등 환등은 대부분 중국에서 주문제조돼 수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되고 있으며 어떤 사찰은 아예 연꽃등을 걸지않고 있다.

교계에서는 전통등을 살리기 위해 왜색등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와함께 장등 환등이 주름식 비닐등으로 비에 젖지않고 여러번 사용가능한 실용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는만큼 우리전통 연등에 응용하여 사용하지는 의견도 비등하다.

전통등의 기본모양을 갖추면서 환등 장등의 좋은점을 개량하여 발전시켜서 다양하게 사찰에서 사용할 때만이 인스턴트시대의 사회흐름에 퇴화되지 않는 우리 전통등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 라는 것.

조상들은 기도내용에 따라 연꽃을 비롯 각종 꽃과 과일 어류 또는 동물모양의 등을 만들어 기원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참의 마늘 거북 할 탐 누각 항아리 병 만세등 등 40여가지에 이르는 전통등을 현실에 맞게 되살려내는 관심과 계몽이 요구된다.

김원우 기자

현대만평

현대만평

737-8881



뜻이 통하는군요



모시는 글

다가오는 21C 불국정도를 이루기 위해 하루도 변함없이 어린이 포교 일선에서 정진하고 계신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3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佛國의 나라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그동안 숙박시설 불편과 협소한 부대시설로 인해 교육효과를 높이지 못한 점을 감안, 최고의 숙박 및 교육시설을 갖춘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여름불교학교에 활용되는 실제 교육과 수행에 중점을 두어 교육 효과를 한단계 높이고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일차 연수회 일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보다 알차고 유익한 여름불교학교를 위해 사부대중은 빠짐없이 동참하시어 정진하는 지도자의 청정한 발원을 가슴속에 새겨 가시기 바랍니다.

2541년 5월 좋은날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사단법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정진하는 지도자, 희망찬 미래불교”

■일 시 : 불기2541년6월14일(토)~15일(일)

■장 소 : 경주 교육 문화회관 (보문단지 내)

■동참금 : 5만원 (근로생, 도서벽지 지도자 50% 분회지원)
(1박 3식, 가방, 연수자료집, 어린이 가슴에 여래의 꽃을, 어린이 교재 교학년, 저학년, 포스터)

■참가대상 : 어린이 지도 법사 및 교사, 어린이 포교에 관심 있는 분

■미리 접수 받습니다

(실명인 관제로 송금하신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5월 15일~31일까지 선착순 600명
- 우체국 601310-0037877-11 예금주: 대불어(조종환)
- 접수담당 : 박해진, 강은화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구

■강의준비물 : 풀, 가위, 색종이-양면 1묶음/갈은색 1묶음, 꽃나라 색종이 1묶음, 신문지, 잡지

■문의 : 본회 사무국

☎(051)808-4569~70 FAX 808-4571

PC천리안 GO BOSAL(ZSBOSAL 2번 운영자 수신편지이용)

23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내 용	강 사	비 고
• 여름불교학교 강의 1 어린이에게 참선교육은 이렇게 시킨다	대표스님	원명선원 회주
• 여름불교학교 강의 2 어린이에게 바른 부처님 가르침을	철오스님	본 회회장
• 여름불교학교 강의 3 새롭고 흥미로운 불교학교	우수사찰 발표	
• 여름불교학교 강의 4 어린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키워드	김 민	청주 추성전문대 청소년 문화과 교수
• 여름불교학교 강의 5 친진불심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이상호 서울지구	신재연구모임이분과장/ 서울지구지도교사
• 여름불교학교 강의 6 부처님 노래와 율동	권양숙	종경소리
• 여름불교학교 강의 7 이럴때 이런 놀이 -그림별 집중게임, 놀이	윤대일	가일레크리에이션 이원 기획실장
• 여름불교학교 강의 8 알록달록 종이로 꾸며보는 부처님 세상	송명화	한국종이접기협회 전일강사